

浮石寺附近地形圖



片、青銅箸等이 收集되었다.

〔註〕浮石寺慈仁堂에 移安된 三軀座像中 光背가 없는 一座는 浮石寺東 崗 넘어의 俗稱 「藥師窟」에서 移置된 것이다.

劉淑의 望月圖

孟 仁 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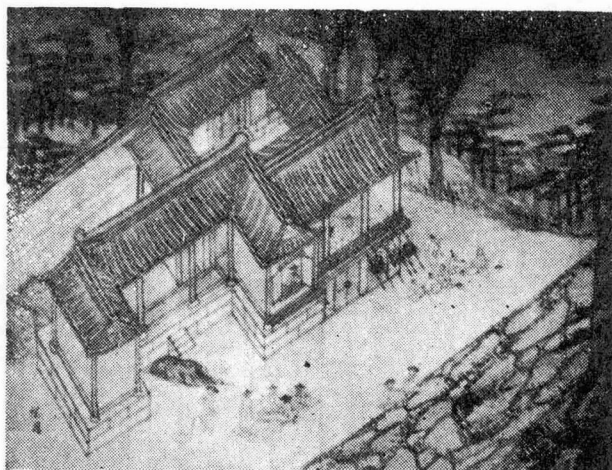
額子, 紙本着色, 二七·五×三三·八 種

全盤弼氏藏

(劉淑 字善永 一云野君, 號蕙山, 漢陽 人 純祖二十七年丁亥生, 書員, 司果 卒 年四十七)

그림은 今年 四月 五日부터 七月 二日까지 國立博物館에서 主催한 〈李朝人의 生活 風俗圖展〉에 出陳되었던 것인데 淡靑彩 主調의 界畫이며 畫面의 左下隅에 〈望月〉 두 字를 行書體로 墨書하고 〈陽文〉 〈淑〉 〈陰文〉 이라 두 方印을 눌러 글맺고 있다. 이 落款과 對角線으로 相稱되는 畫面의 右上隅에는 보름달인듯한 明月이 떠 있어 이 그림의 對角線 布置를 더욱 緊密히 하고 있다. 畫面은 高臺위에 南向한 建築物 中心으로 中秋佳節의 막 떠오르는 달을 구경하는 場面으로 보이는 데 이 그림은 手法上 자를 援用하여 建築物의 細部를 그린 界畫가 갖는 特性과 畫者의 視點을 높이는 俯瞰法의 두가지 顯著한 特性을 지니고 있다.

界畫는 古代로부터 宮室, 書院을 中心으로 宮室, 또는 國家的인 諸 儀式圖를 그리는 데 따라 發達한 畫法으로 界尺을 使用하여 建築物 器用의 細部를 그리는 技法인 만치 建築的으로 正確하며 建築內의 空間을 잘 나타내는 것을 높이 쳐주었고 畫者의 技術的인 熟練이 必要하기 때문에 自由롭고 漂逸한 意志의 表現을 尊重하는 士夫畫의 立場에서는 最下級의 繪事로 처왔다. 中國에 있어서는 初唐의 閻立德 兄弟가 이 方面에 優秀



하여 宮庭의 裝飾과

車輿冠服의 制作、

土木建築等各方面

에서 活躍하여 匠學

의 名家로 알려져

있었던 모양인데 이

그림이 갖는 機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 上代로부터 그와

같은 御用畫를 發達

시켰을 것이며 歷代

의 畫員들이 이에

從事한 것은 當然한

일이었을 것이다.

서울大學校博物館

藏、大快圖나 國立

博物館藏 壽用楔帖、

李秉喆氏藏 陵行圖、

金承鉉氏藏 平生圖、

全濟玉氏藏 國葬圖、

等은 모두 이와 같은 그림들이거나 界畫의 技法은 近世의 耕織圖나 風俗畫에도 많이 援用되었던 것을 많은 그림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을 것이다.

俯瞰法도 中國에서는 六朝時代로부터 차츰 完全에 가까워지만을 把握되기 시작한다. 한데 高句麗古墳壁畫에서도 案床의 人物과 같은 데서 그 예를 볼 수가 있다. 俯瞰法은 西洋의 透視法과 달라서 遠景에서 視點이 縮少 消失되지 않고 構圖統一의 中心인 焦點이 있을 뿐이며 그 視點의 上昇으로 因하여 三次元的인 空間을 顯出시키게 되는데 그 發生過程에서 보더라도 透視法이 지니는 科學性 寫實性에서 出發하지 않고 記憶表

象에 의한 觀念의 特性에서 出發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劉淑은 畫員이었던 만큼 朝廷의 儀式圖나 圖書의 插畫、其他 圖面의 制作에도 從事하였으리라 하고 짐작되며 界畫에 저지아니 손을 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參考 會參御眞特蒙天恩 書畫徵)

望月圖의 界畫의 技法은 만드시 그의 畫員으로서 衣食을 依存한 一面

工人的 立場과 結付시킬 것은 없다 하더라도 아주 沒却할 수도 없는 일

일테지만 이 技法이 近世에는 個人的인 草堂、庵子、茅屋、書齋 등을 그

리는데도 많이 援用되어 文人畫의 自由로운 技法으로 傳受되어온 一面

도 있으니 이 그림은 後者의 境遇에 屬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는 建物을 畫面의 對角線上에 配置하고 建物描寫에만 界尺을 使用

하였으며 人物과 周圍風景은 自由로운 墨筆로 處理하였는데 界尺의 使

用에 對애를 쓴 모양이나 正面、側面、上面關係의 어떤 部分(집옹, 마

루, 기둥)을 正確히 描出하지 못한 難點이 있다. 視點上昇의 角度는 四

十五도가량일 것이며 따라서 俯瞰法의 效果는 正確에 가깝고 快適하다.

舍廊과 들은 開放되고 活氣를 띠우고 있으나 人物의 動作은 오히려 더

오르는 달과 無關하고 달은 문이 닫힌 內室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하다. 中國式으로 畫題를 分類한다면 閑適類에 들 것이다.

慶州出土의 土塔

黃 壽 永

數年來 慶州出土라고 傳하는 土塔 九點을 過眼한 바 있으므로 간단한 實測圖를 넣어 紹介한다. 新羅의 土塔은 日帝時에도 相當數 發見되어 國立博物館을 비롯하여 內外人의 所藏이 되었는바 그 集成과 分類를 위한 資料를 삼고자 한다. 韓國土塔은 거의 方形層塔樣式을 보이고 있는 바 이같은 特色은 日本과도 다른 點이며 비록 모두가 信仰的 所産이라 하더라도 當代 塔樣式과도 緊密하게 關聯되어 造成되었다고 보고자 한다.